

'안전한 길'보다 '헤쳐나갈 힘'

앞서 강의하신 분들의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다. 미래 사회에도 살아남을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평생 불사할 기업을 찾아 취업하거나...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한 해 수능 응시자 수(60만명)의 3분의 1 가까이 가 몰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일 터이다.

하지만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직업을 선택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부터 묻고 싶다. 당신은 과연 초등학교 때 20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의 직업을 선택했나? 내 여동생이 간호사인데, 각종 미래 예측에 따르면 간호사는 앞으로 20년 뒤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유망 직업이다. 그런데 내 동생이 과연 이런 미래 가능성을 보고 간호사가 되었을까?

나 또한 마찬가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만들기 전 15년간을 교직에 있었는데, 내가 교사직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닭 장사를 하던 어머니가 내게 시켰던 고된 노동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1989년엔 교사 인기가 좋거나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당시 직업 조사에서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26위 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랬던 교사가 외환위기(IMF 구제금융)를 거치며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1위로 탈바꿈한 것이다.

배우 김여진씨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책(<내가 걸은 만큼만 내 인생이다>)이 인상 깊었다. 김씨는 연극을 하면서 연기에 빠져 지낸 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한다. 월급이 8만원에 불과했던 당시,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고 극단이 있던 대학로에서 집(신촌)까지 지하철도 못 타고 걸어다녀야 했지만 늘 자부심이 넘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그녀는 주연배우와 자기 처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짜증을 내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가 변한 것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였다. 어느 날 명동에서 벌어진 결식아동 돕기 캠페인에 참여한 그녀는 모금을 위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동안 그간의 질투심이나 경쟁의식이 모두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 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10년만 가난할 결심을 하자. 남들 다 가는 흔해빠진 길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10년만 걸어가면 그 편이 훨씬 의미 있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멋지지 않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펴낸 <찾았다 진로>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지침으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갖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할 것'을 제시한다. △자기 재능이나 적성에 맞는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가가 그 기준이다. 두 번째 지침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길에서 만나는 실패를 수용하자는 것이다. 진로와 관련해서 실패나 우연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꺾이지 않는 의지, 올바른 판단력, 사람에 대한 감수성, 이타심.... 이런 것들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보통 중학교 때만 되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 의지를 꺾어버리곤 하지 않나. 그럼에도 부모가 아이의 진로를 위해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먼저 에이브리햄 매슬로가 말한 '5단계 욕구 이론'에 따라 어릴 적엔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사춘기 단계부터는 '자기존중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이것이 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 우리 아들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엄청나게 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걸 보면서 '내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돌이켜보면 아마도 어릴 적 발달 단계 중 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다.

나아가 부모는 아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동생 부탁을 받고 조카의 진로 상담을 한 일이 있다. 사춘기인 조카의 꿈은 세 가지. 가수·사진작가·의사라고 했다. 그런데 의사는 성적이 안 따라주고, 사진작가는 사진에 대해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그 중 가수를 하는 걸로 마음을 정했단다. 그래서 '년 가수가 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했다. 하다못해 어머니 친구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일도 없다고 했다.

이날 나는 조카에게 가수가 되겠다고 지금부터 음악학원에 다닐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었다. 대신 지금부터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서 어머니 친구한테 들려주고, 스마트폰으로 아무 사진이나 찍는 연습을 해보라고 했다. '아무것도 결정하려 하지 말고 뭐든 다 해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적절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그랬더니 아이는 몹시 기뻐했다.

뭔가를 해보아야만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런 시도는 해보지도 않은 채 가슴속에 계속 소망만 품고 있는 상태는 위험하다.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직접 부딪치다 보면 그 속에서 에너지와 의욕이 계속 터져 나온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